



**IBK기업은행-핀베라, 중소기업 지원 MOU**

IBK기업은행은 지난 6일(현지시간) 헬싱키에서 핀란드 정책금융기관인 핀베라(Finnvera)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창환 IBK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유세 하라실타(Jussi Haarasilta) 핀베라 기업금융부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삼표그룹,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후원금 전달**

삼표그룹이 임직원 공감 후원 프로젝트인 'SPread the Love'를 통해 희귀질환 아동 후원금 1513만원을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전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왼쪽부터)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담당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 삼표그룹 블루허그 남윤식 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코카-콜라, '원더플 캠페인' 체험존 운영**

한국 코카-콜라가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이하 '원더플 캠페인')' 시즌5 오프라인 체험존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오프라인 체험존은 파트너사인 이마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마트 및 트레이더스 매장 4곳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첫 운영지는 이마트 청계천점이다. /한국 코카-콜라



**제주항공, 필리핀서 24번째 의료봉사 펼쳐**

제주항공이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필리핀 세부 나가시티에서 24번째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의사회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39명이 참여해 무료 진료와 약 처방, 보건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제주항공

**농식품부-농촌진흥청**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촌자원의 관광가치 발굴이란 주제로 국내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도 가능) 대상으로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청년세대(MZ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안' 또는 '사업화 모델' 중 1개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문풍지·꽃의 반항' 등 작시... 한국시 국제화 주도**

**김광림 시인 별세**

향년 95세... 한국시인협회장 발인 11일, 장지 서울 현충원



김광림 시인

"나이 예순이면/살 만큼은 살았다 아니다/살아야 할 만큼은 살았다 /이보다 덜 살면 요절이고/더 살면 덤이 된다/이제부터 나는 덤으로 산다(중략)"

1989년 회갑을 맞으며 "이제부터 덤으로 산다"고 말한 시인 김광림씨가 덤 인생 삼오해인 올해 9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고인은 192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충남(忠男)이다. 원산공립중학을 거쳐 평양종합대 역사문학부 외국문학과에 입학했다.

1948년 12월 한탄강을 거쳐 단신으로 월남했다. 그해 안양에서 '청포도' 동인과 어울리다가 청록과 시인 박두진의 권유로 구상 시인을 만난 것이 인연이 돼 '문풍지'라는 시를 처음 발표했다.

경기 여주군 북내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중 6·25전쟁을 만나 육군 소위로 참전한 고인은 1959년 첫 시집 '상심하는 접목'을 펴냈다. 1961년에는 김중삼, 김요섭 시인 등과 함께 문예지 '현대시'의 창간 동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한 고인은 문화공보부, KBS, 한국의환은행 등에 잠시 재직한 뒤 장안대 교수로 봉직하다 1996년 퇴직했다. 1992~1994년에는 제28대 한국시인협회장을 지냈다.

시인은 서구 모더니즘의 바탕에

서 이미지를 통한 명징한 시 세계를 추구한 시인으로 꼽힌다. 정지용, 김기림에서 시작해 김광섭, 박남수 등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시의 주지주의적 흐름을 잇는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평가된다.

1959년 '사상계'에 발표한 시 '꽃의 반항'은 전후(戰後)의 황폐함을 배경으로 꽃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시키며 도회적 서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김광림은 화가 이중섭과의 인연이 깊다.

시인은 해방직후 1947년 원산에서 이중섭을 처음 만나 그가 작고한 1956년까지 인연을 맺었다. 장교 복무 시절에는 이중섭의 요청에 따라 외출을 나올 때마다 보급품 박스 속에 들어있던 양담배 은박지를 수집해 그림의 재료로 전해줬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중섭 화가는 1955년 서울 미도파백화점과 대구 미공보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실망과 충격으로 대구

에서 만난 고인에게 '내 그림은 다 가짜야.'라고 하면서 불태워 달라고 했다. 은박지 그림과 소품들을 보관했다가 이중섭 화가와 같이 머물고 있던 친구이자 소설가 최태응에게 모두 돌려줘 가짜로 은박지 그림을 살려냈다."(2011년 11월 18일 서울신문 인터뷰)

시인은 1980년대부터는 한국시의 국제화를 위해 힘쓰면서 한·중·일 시단 교류에도 앞장섰다. 1985년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한 고인은 1999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 2001년 국가유공자증서 등을 받았다. 2009년에는 '허탈하고플 때'로 청마문학상을 수상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한국시인협회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아들 상수(바움커뮤니케이션 회장)·상일(조각가)·상호(대만과 기대 학장)씨와 딸 상미씨 등이 있다. 발인은 11일 오전, 장지는 서울 현충원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시몬스, 지역 자원순환 돕는다... "지속가능한 미래 동행"**

**이천시 자원순환 MOU 체결 폐기물 재순환 활동 등 추진**

시몬스가 경기 이천시와 순환경제사회를 위해 힘쓴다.

시몬스는 최근 이천시 복하천 일원에서 행사를 갖고 이천시와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몬스는 이천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이천시 모가면 일대에 생산시설 및 수면 연구 R&D센터 등을 갖춘 '시몬스 팩토리움'과 ESG 산실인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 등이 있다.

협약을 통해 시몬스와 이천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내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폐기물 재순환



시몬스가 경기 이천시와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 참석자들이 이천 복하천에서 흥공을 던지고 있다. /시몬스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양측 임직원들과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중고물품을 기부하고, 쓰레기 줍기와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흥공' 던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구축에 가까이 동참해 준 시몬스 침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의 재순환 및 순환경제 전환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이천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이웃으로서 다채로운 ESG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시몬스 테라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 점등'과 '파머스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SKT "K-POP 호텔' 놀러오세요"**

**이프랜드에 커뮤니티 공간 마련**

SK텔레콤이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 K-POP 아이돌과 글로벌 팬이 만나는 새 커뮤니티인 'K-POP 호텔'을 10일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커뮤니티는 이프랜드 공간을 연결한 메타버스 속 가상 호텔이다. 호텔 모든 층을 조망할 수 있는 '인트로 화면', 1층부터 99층까지 각 아이들이 층별로 체크인하는 '아티스트 라운지', 멤버별 특색을 담은 '멤버룸' 등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됐다.

휴화면은 1층부터 99층까지 체크인한 아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팔로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층수는 아



SKT 모델이 'K-POP 호텔'을 소개하고 있다. /SKT

티스트가 직접 선택한 숫자로 지정된다.

K-POP 호텔 첫 손님은 99층에 체크인하는 아이돌 '에스파'와 2층에 체크인하는 이프랜드 걸그룹 '이프랜드스'다. '라이즈'와 '산다라박'이 각각 이달 말, 9월 순차적으로 체크인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스타벅스,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

**다회용컵 고객 별 추가 적립**

스타벅스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개인 컵 이용에 대한 감사의 별을 제공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0일 개인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별 1개를 추가로 제공하며, 다회용 컵이 용 활성화를 위한 '일(1)회용 컵 없는(0) 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10일 하루동안 적립된 에코별 1개 당 1개의 추가 별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추가 별은 6월 25일에 일괄 적립된다.

개인 컵을 쓰면 쓸수록 혜택은 더해져 만약 10일 하루 동안 개인 컵으

로 3잔의 음료를 구매한다면 에코별 3개와 추가 별 3개까지 총 6개의 별을 제공받게 되는 셈이다.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매월 10일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개인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해 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머그, 텀블러, 커피박 화분 키트, 음료 쿠폰 등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해왔다.

올해 5월부터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하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와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